



홀리오 마글리오네 국제수영연맹(FINA) 회장과 사무총장, 이용섭 광주시장, 조석위 사무총장이 28일 오후 광주 광산구 남부대학교 2019광주세계수영대회 주경기장 메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폐막 기자회견 ‘도핑 논란’ 날선 질문



쑤양도핑 회피 의혹 관련 외신기자들 집중 질의 “시상식 거부, 도핑 테스트 항의 등 수영의 위기”

한 외신 기자는 “일부 선수들이 포디움에 올라가 (쑤양과 함께) 시상하는 것을 거부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문했다. FINA 마르클레스쿠 사무총장은 “우리는 스포츠의 성직과 아름다움에 집중하고 있고 수상 거부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수영연맹국가와 선수들과 대화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또 한 외신 기자는 “여러번에 걸쳐 (쑤양과) 시상을 거부하고, 도핑 테스트에 항의하는 불미스러운 일이 있는데 수영의 위기가 아닌가”라고도 FINA 측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마르클레스쿠 사무총장은 “아쉽게 생각한다. 우리는 연합해 함께 일해야 한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다”며 “FINA는 300만 달러를 투자해 도핑 관리를 하고 있다. 잘 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이 외신 기자는 “특정 선수에 도핑이 반복되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고 FINA 측은 “내부 규정에 따라 잘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번 대회에서 중국의 수영 영웅 쑤양은 남자 자유형 400m 최초의 4연패를 달성하고 자유형 200m에서 금메달을 차지했다. 하지만 호주의 맥 홀튼과 영국의 던컨 스콧은 시상식에서 쑤양과의 악수와 기념촬영을 거부했다. 남자 계영 800m 예선에서 브라질의 주앙 두루카는 쑤양이 경기를 마치고 풀장에서 악수를 청했으나 외면한 채 자리를 떴다.

신수준 내에서는 ‘쑤양 패싱’에 대한 세계 각국 선수들의 응원의 박수가 이어지기도 했다.쑤양의 도핑 회피 의혹에 따른 거부감 때문이다. 쑤양은 지난 2014년 5월 중국반도핑기구(CHINADA)가 실시한 도핑 테스트에서 트리메타지딘(Trimetazidine) 양성 반응을 보여 3개월 자격 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후 지난해 9월에는 도핑 검사관이 집을 방문했을 때 혈액이 담겨있던 샘플을 망치로 훼손해 테스트를 회피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FINA가 쑤양에게 이번 대회 출전 기회를 준 데 대해 세계 각국 수영선수들의 반감이 집단 표출된 것으로 풀이된다. FINA가 선수들의 집단 항의가 일어나자 선수 행동규범을 신설해 대응에 나섰다. 다만 도핑 논란에 대한 세계 수영선수들의 반감은 더욱 확산되는 모양새다.

뉴스스

찾아가는 재난안전교실 “지금 신청하세요”

광주시, 교육비 무료

광주시는 재난 및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과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연중 ‘찾아가는 재난안전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교육 내용은 ▲폭염, 미세먼지, 풍수해, 지진 등 기후변화로 대형화되고 빈번해지는 각종 자연재난에 대한 대응 요령 ▲일상생활에서 빈번히 발생할 수 있는 놀이시설 사고, 학교 내 안전사고, 교통사고, 노인낙상사고 등에 대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생활안

전 교육 ▲응급상황 발생 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심폐소생술, 하임리히 요법 등 3개 분야로 구성됐다. 또 ·일요일 등 휴일을 제외하고 시 안전정책관실로 공문 또는 팩스 (062-613-4929)로 신청하면 된다. 교육비는 무료다. 교육은 재난안전 전문강사가 유치원·어린이집, 학교, 경로당, 공동생활가정 등 신청 시 지정한 장소를 방문해 맞춤형 안전교육을 진행,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서은홍 기자

“안방서 스마트폰으로 어장관측정보 본다”

전남도, 모바일 앱 개발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은 연안해역의 수온 등 해양환경 관측 정보를 스마트폰으로 검색할 수 있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전남바다알리미’를 개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자체 개발한 ‘전남바다알리미’ 앱은 전남 해양 관측 자료뿐만 아니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국립해양조사원 및 기상청 등 각 기관에서 관측하는 정보도 함께 제공한다. 위젯 기능인 ‘전남바다알리미’에서는 스마트폰 메인 화면에서 실시간으로 손쉽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김정환 기자

동구마을분쟁해결센터 소통방 확대 운영

광주 동구가 ‘2019년 광주마을분쟁해결센터 소통방 지원사업’에 7개소가 선정돼 마을에서 발생하는 마을분쟁 해결을 돕는다. 소통방 지원사업은 마을주민이 운영주체가 돼 화해지원인 교육을 비롯한 마을에서 일어나는 각종 마을분쟁들을 주민들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해 소통방이 이웃 간 관계를 회복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지난 2015년 광주마을분쟁해결센터가 개소하면서 광주 5개 자치구에 38개소 소통방이 개소했다. 동구는 2017년 1개소, 2018년 1개소가 선정돼 운영 중이며 올해 7개소가 선정됐다. 그 결과 지난 23일 산수동 ‘따뜻한 산수골 소통방’이, 26일에는 지산동 ‘지산휴먼시아 행복소통방’이 개소하는 등 소통방을 통해 마을분쟁 해결을 지원할 예정이다.

서구, 노인일자리 수영선수권대회 환경미화 참여

광주 서구가 세계수영선수권 대회와 연계한 노인일자리 사업을 진행한다. 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와 협력을 통해 진행되는 이번 일자리사업은 안정적이고 양질의 노인일자리 확대를 위해 마련됐다. 이번 사업에서는 지속 추진중인 ‘노인일자리-공영주차장관리지원사업’의 참여자들이 경기일정에 맞춰 7월과 8월 영주체육관 주차장 및 환경미화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번 일자리 참여자들은 광주 노인 일자리의 대표자로 세계수영선수권대회 환경미화 업무에 참여하고 내외국 손님들에게는 깨끗하고 질서 있는 안전한 광주를 알리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남구, 총상금 400만원 환경보호 실천 UCC 공모전

광주 남구는 급격한 기후변화와 대기질 악화 등 날이 심각해지는 환경 문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환경보호 실천 UCC 공모전을 실시한다. 26일 남구에 따르면 환경의 소중함을 일깨우기 위해 열리는 이번 환경보호 실천 UCC 공모전은 회 용품 줄이기와 기후변화 등 환경보호와 에너지 절약을 주제로 순수 창작한 애니메이션을 비롯해 웹툰, 동영상 등 영상물(UCC)을 대상으로 한다. 공모전은 초·중·고교생들의 참여가 가능한 학생 부문과 대학생 및 성인이 참가하는 일반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남구는 심사를 거쳐 학생 부문과 일반 부문에서 각각 최우수상 1팀과 우수상 2팀, 장려상 3팀 등 총 12개 작품을 선정해 총상금 400만원과 함께 구청장 상 등 상장을 수여할 계획이다.

북구, 신속집행 평가 최우수 기관 선정

광주 북구가 2019년 신속집행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에 선정됐다. 북구는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19년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실적 평가’에서 광주시에서는 유일하게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으며, 9년 연속으로 수상하는 쾌거를 달성했다.”고 28일 밝혔다. 특·광역시(8), 도(9), 시(75), 군(82), 자치구(69) 등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평가에서 북구는 신속집행 목표액 811억 원 대비 152%인 1232억 원을 집행해 전국 자치구 중 최우수기관에 선정되면서 행정안전부장관 표창과 재정 인센티브 6천 1백만 원을 지원 받게 됐다.

광산구, 사례관리 생명존중지킴이 사업 간담회

25일 광주 광산구가 하남종합사회복지관에서 생명존중 문화 확산과 자살 예방을 위한 ‘사례관리 생명존중지킴이 사업’ 5차 간담회와 통합사례회의를 열었다. 광산구 생명존중지킴이 사업은, 고독사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우산동 영구임대아파트 입주 중 정신질환을 앓거나 자살 위험이 있는 1인 가구 만40~64세 중장년을 발굴해 지역자원으로 적절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광산구는 지난해 9월부터 실시한 이 사업으로 우산동 영구임대아파트 총 460세대를 방문해 위험군 202세대를 발굴했다. 현재 고위험군 32세대는 사례관리, 170세대는 수시 모니터링 중이다.

임형택 기자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중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광고 직통 ☎ 062)224-5800
팩 스 222-5547

박우열 세무회계사무소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11번길 4 2층
Tel 062)710-8700 Fax 062)710-5400

- 세무기장 · 조정
- 법인설립
- 양도소득세
- 상속증여세

“건강보험, 월10만원 내고 18만원 혜택 받았다!”

2016년 현재 국민은 한 세대당 평균 104,062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평균 183,961원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으며, 보험료 납부액의 1.77배에 달하는 급여 혜택을 받으셨습니다.

보험료	혜택액	비율
월보험료 납부 104,062원	건강보험 혜택 183,961원	1.77배

2016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보험료	고소득층	중위	3분위	4분위	저소득층	평균
보험료	240,833원	125,531원	79,147원	48,103원	26,697원	118,272원

5.3배

“딱 한잔만 마셔도 음주운전입니다”

한 잔만 음주를 해도 운전대를 잡지 않고, 전날 과음 하거나 늦게까지 음주를 한 사람은 다음 날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근을 하는 등 안전한 운전문화를 만들어야 할 수 있도록 다함께 약속해주세요.